손끝으로 장엄하는 괘불탱



우리가 사랑한 괘불탱, 마음 챙김 컬러링 북
성보문화유산연구원 지음
제이펍 / 1만9800원

국보·보물 괘불탱 18점 컬러링
10년 조사 성과 대중에 첫 소개
도판 감상하며 해설로 이해 높여
"색 채우는 과정이 곧 마음 수행"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사찰의 큰 법회 때만 공개되는 장엄한 불화 '괘불탱'을 일상에서 감상하고 직접 색칠할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

국가유산청과 괘불탱 조사를 진행해 온 성보문화유산연구원은 최근 국보 4점과 보물 14점을 수록한 〈우리가 사랑한 괘불탱, 마음 챙김 컬러링 북〉을 펴냈다. 국보인 △부여 부량사 미륵불 괘불도 △신원사 노사나불 괘불탱 △장곡사 미륵불 괘불탱 △화엄사 영산회 괘불탱을 비롯해 보물인 △포항 보경사 괘불탱 △적천사 괘불탱 △통도사 석가여래 괘불탱 등 총 18점을 담았다.

책은 전통 불교회화의 미감을 손끝으로 체험할 수 있게 구성했다. 작품마다 원형을 충실히 반영한 도판을 배치해 괘불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다. 또 작품 감상 포인트와 색 정보, 괘불탱마다 주목해서 봐야 할 세부 문양, 색칠 가이드를 제공해 불화의 상징과 구도를 이해하며 색칠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철 제본 방식으로 제작돼 펼침이 편리한 것도 장점이다.

성보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 10년간 국가유산청·국립문화유산연구원·조계종과 함께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사업을 수행하며 전국 64점의 괘불탱을 조사해 안료와 제작 기법, 그림에 담긴 상징을 밝혀 왔다.

이들은 "괘불탱은 우리 문화와 정신을 보여 주는 중요한 기록"이라며 "수백 년 전 화승(畫僧)의 손끝에서 탄생한 괘불은 당시 사람들의 기도와 바람, 그리고 공동체의 힘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의미를 짚었다. 이 책은 그간의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괘불탱을 대중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소개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컬러링이라는 일상적 행위를 통해 불교미술의 정신성과 아름다움을 체험하길 바란다"며 "색을 채우는 과정이 곧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보문화유산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유·무형 유산을 조사·연구·보존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불교 문화유산 전문 조사 기관이다. 〈한국의 불화〉(전 40권), 〈한국의 불화 화기집〉, 〈한국의 사찰 벽화〉를 출간했다.



책은 우리나라 대표 괘불탱을 색칠하며 감상할 수 있게 구성했다. 사진 제공=제이펍

영화로 읽어 낸 흥미진진 차 이야기



차가 일상
김소연 지음
아트레이크
2만2000원

'차 덕후' 기자의 인문 해설서
어원부터 분류법·상징 등 설명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말차(抹茶)가 큰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도 말차를 활용한 다양한 식음료 제품이 앞다퉈 출시되고 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녹차를 갈면 말차가 되는 거 아냐?"

아니다. 말차는 채엽 20일 전쯤 빛을 가려 재배한 찻잎을 찌고 말리고 분쇄하는 과정을 거쳐 만든다. 녹차보다 공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줄기와 잎맥을 제거하고 갈아 내 쓴맛이 덜한 것이 특징이다.

〈차가 일상〉은 30여 년 경력의 기자가 차에 관한 역사·문화·예술 이야기를 풀어 낸 책이다. 1장에서는 차를 가리키는 용어인 'Tea'와 'Cha'의 어원과 대표적인 차 분류법인 '6대 다류' 등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아편전쟁과 보스턴 티 파티 등 세계사의 한 장면에 등장하는 차 이야기를, 3장에서는 백차·녹차·황차·청차·흑차·보이차의 역사와 특징을 들려 준다. 4장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된 홍차, 5장은 대만차와 일본차, 인도차, 케냐차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6장에서는 영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와 '타샤 튜더', 오페라 '나비부인' 등 대중매체에 나타난 에피소드를 통해 차 한 잔이 인물의 서사와 감정의 배경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저자는 매경이코노미 국장으로 4년간 매일경제신문에서 발간하는 경제 월간지 〈럭스멘〉에 '김소연 기자의 영화로 보는 차 이야기'를 연재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말차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차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책 〈차가 일상〉이 출간됐다. 사진은 다완에 담긴 말차. 사진 출처=픽사베이

"울어도 쓰러져도 삶은 다시 피어난다"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
원영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1만8000원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해 온 원영 스님이 이번엔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산문집을 출간했다. 사진 제공=불광출판사

바람에 한기가 스며드는 계절이면 마음 한편에 외로움이 더해진다. 새해의 굳은 서원은 모두 어디로 사라지고 달력의 마지막 장만 남겨 두게 된 것인가. 허망함에 자책감은 더욱 쌓인다.

'이제서야 이해되는' 시리즈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해 온 원영 스님이 이번엔 우리를 위로하는 따뜻한 산문집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로 찾아왔다. 때로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도, 끝내 삶은 살아진다는 희망을 담아서.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꿈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죠. 하지만 너무 힘들면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꿈을 포기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서 당장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불교 '일타 강사'가 전하는 위로
지치고 힘들어도 '삶은 살아진다'
무상·관계·연대·비움의 가르침

원영 스님은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는 이들에게 '살아지는 삶'의 가능성을 일깨운다. 수행의 언어를 빌리되 강권하지 않는다. 모난 감정과 관계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 내적 갈등과 흔들림을 숨김없이 고백하며, 독자 역시 자신의 현실을 조용히 인정하도록 이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열정도 내게 분노나 괴로움을 준다면, 우선은 그 열정부터 식힐 필요가 있습니다. 가던 길을 쉼 없이 계속 가는 것도 좋지만, 지치고 힘들다면 일단 한숨부터 돌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스님은 절망의 언어인 '포기'를 재해석한다. 포기는 실패나 도망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지혜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집착을 놓아 버릴 때 비로소 삶이 새롭게 열리는 이치는 불교의 오랜 가르침이기도 하다.

스님은 괴로움의 근원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집착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방법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無常), 삶은 연결 속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관계와 연대', 꺼지지 않는 불씨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하는 '내면의 불씨', 놓아야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비움과 새로움'의 가르침이 그것이다.

그리고 알면서도 차마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한다. "꽉 쥔 손에 힘 좀 빼 보면 어때요? 때로는 울어도 괜찮아요. 곧 봄이 올 거예요!"

